

천태만상, 자판기 세상 속으로

자판기가 세상에 존재하는 절대적인 이유는 인간의 편의에 있다. 비록 말 못하고 행동 없는 정적인 대상물이지만 인간과 더불어 호흡하고 서로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기를 주저치 않는다.

인간 친화적이고 인간 지향적이어서 인간과의 어떠한 소통도 거부하는 일이 없는 자판기. 그 다양한 종류와 영향력만큼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웃지 못할 이런 저런 에피소드에서 각종 사건, 사고에 이르기까지 자판기가 삶 속에 투영되는 모습은 실로 다양하다. 인간의 삶이나 자판기의 삶이나 천태만상이기는 마찬가지다. 그래서 자판기 주변에 투영되는 각종 천태만상의 화제거리를 두서없이 담아보는 것도 재미있는 일이라. 자, 그럼 지금부터 그 천태만상 자판기 세상 속으로 여행을 떠나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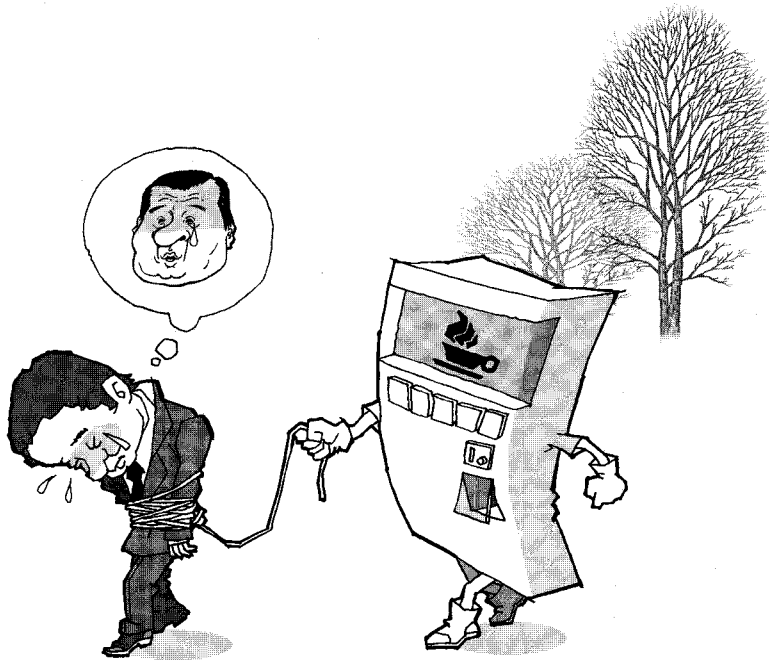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는 커피자판기 한대가 실로 엄청난 사고(?)를 쳤다. 유사 이래 자판기 한대가 그토록 엄청난 사건의 단초가 된 것은 아마 범세계적으로도 유래가 없는 일이 아닐까 한다. 무슨 일인가 하면 지난 대통령 아들인 김홍걸씨 소환의 단초를 제공했던 최규선 게이트가 폭로되는 데 있어 커피자판기 한대가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을 했다.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된 데는 최규선씨와 그 비서였던 천호영씨의 갈등에 기인했다고 한다. 호형호제 할 정도로 절친한 사이였던 두 사람의 관계는 커피자판기 한대 때문에 악화되기 시작했다. 최규선씨는 자신의 부인이 운영하는 건물 내 1층 커피숍의 매출이 4층 천호영씨 부인이 운영하는 매점에 설치한 한대의 커피자판기 때문이라고 문제를 삼으며 이 자판기의 철수를 요구했다고 한다. 이에 천호영씨가 반발해 그 갈등의 끝은 깊어만 갔고 급기야 지난 3월 천호용씨는 동네 PC방에서 “김홍걸씨와 최규선씨, 김희완 전 서술시 정부부시장 등이 체육복표사업에 개입하고 그 대가로 주식과 돈을 받았다”는 글을 올려 전국을 소용돌이로 몰아넣었다. 당시 천호용씨는 이글의 파장이 그렇게 확대될 줄은 몰랐다 한다.

이 사건은 결국 대통령 아들 김홍걸씨 소환까지 이어져 각종 비리를 밝혀내 구속까지 하는 사태로 이어졌다. 또한 사회적 여론은 대통령 장남과 차남, 친인척에 이르기까지 각종 비리 스캔들 조사까지 꼬리를 물게 만들어 현 정부의 도덕성에 결정적인 흠집을 끼쳤다.

그때 그 자판기가 그 자리에 설치되지 않았다면? 역사는 달라졌을까. 그 엄청난 각종 비리들이 수면 속에 그대로 잠수하고 있어 현상황 같은 국민들의 불신이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이는 시간의 문제일 것이다. 언젠가는 밝혀질 그 비리들이 다만 자판기 한대로 인해 일찌감치 촉발되었을 뿐이다. 역사의 심판은 시기가 문제일 뿐 결코 피해갈 수 없는 일 아닐까.

이제는 자판기와 관련된 기가 막힌 사건 사고를 살펴보기로 한다. 지난 8월 17일 오전 제주국제공항 택시승차대에 탄저균으로 의심되는 백색가루가 뿌려져 있다는 신고로 119구조대와 국경원, 경찰, 공항 관계자들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같은 대거출동을 통해 확인을 한 결과, 이 백색가루는 공항내 자동판매기 운영자가 설탕을 수송하는 과정에서 일부 흘린 것으로 판명이 났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 다는 속담처럼 미 9.11사태의 영향



은 정말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 같다.

다음은 지난 6월에 발생한 웃지 못할 사건을 살펴보자. 전남 여수시 중앙동 선착장에 세워둔 무쏘 승용차가 8~9m바다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고는 원인조사 결과 “차를 선착장에 세워 놓고 인근 자판기에서 커피를 꺼내 먹고 돌아와 보니 차가 없어 졌다”는 운전자의 말에 따라 제동장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차를 선착장 비탈면에 주차해 사고가 난 것으로 밝혀졌다.

커피한잔 마시려다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당한 운전자 입장에서 자판기가 얼마나 원망스러울까. 그러길래 제동장치는 철저히 해야 한다니까.

이러한 자판기로 인한 큰 손실이 있는 반면 자판기로 대박을 터트린 경우도 있다. 지난 4월 부산시 수영구 망미동 슈퍼 앞에서는 복권자판기를 통해 판매된 즉석복권 중 1장이 5000만원에 당첨되는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당첨된 복권은 자치복권으로 복권자판기는 아이알로직스에 의해 관리되는 자판기로 밝혀졌다.

그 행운의 주인공은 자판기를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아예

기분을 내 그 자판기를 직접구입해 신주단지 모시 듯 섬기는 건 너무 오버일까.

자, 이제는 자판기 천국, 일본으로 넘어가 보자. 최근 그 천국에 암운이 드리워졌다고 할 만큼 일본 자판기 경기도 좋은 편은 못되나 아기자기한 그곳 자판기 문화 특성상 화젯거리는 끊이지 않는 편이다.

우선 지난 8월에는 일본의 인기그룹 ‘스마프’의 캔자판기를 이용한 이색 이벤트 전략이 화제를 불러 일으켰다. 일본에서 국민적 인기를 얻고 있는 스마프는 “Drink! SAMP!!”라는 앨범 타이틀을 걸고 7월 말 새 앨범을 출시하면서 발매기념으로 음반 재킷 디자인과 똑같은 캔음료를 판매하는 캔자판기를 출시해 화제가 되고 있다.

기업들의 홍보활동이 제일 먼저 자리 잡는 프로모션의 중심지인 도쿄 시부야 거리에서 스마프 앨범의 큰 홍보용 간판아래 이벤트 음료수인 “Drink! SAMP!! 자판기 10대를 쪽 놔 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호기심과 눈길을 끌어 모았다고 한다. 자극이 강한 탄산가스에 은은한 홍차 맛이 풍기

는 독특한 맛을 지닌 이 음료는 “사람들의 갈증 나는 마음을 축축하게 해주고 싶다!”라는 스마프의 목표에 딱 들어맞는 프로모션이다.

이색자판기로는 도쿄 야스쿠니 신사에 설치된 비둘기 모이 자동판매기가 큰 화제를 모았다. 비둘기 모이 가격은 100 엔으로 이용자가 비둘기가 선호하는 모이를 투출할 수 있도록 했다. 그야말로 비둘기들이 쌍수를 들고 환영할 자판기의 등장이다.

기상천외의 이색 일본 자판기들을 보면 세상이 요지경임을 절로 느낄 수가 있다. 특히 은밀한 성문화의 상품화에 일가견이 있는 그들은 자판기에 있어서도 아연 질색할 아이템을 등장시키고 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여학생들의 입던 속옷을 판매하는 ‘브루세라자판기’.

여학생의 교복을 성적 흥분의 소재로 활용하는 이상한 취미는 일본에서 큰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정도는 심하지 않지만 인터넷사이트 통해 은밀히 여학생의 입던 속옷이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브루세라 슱’이라는 여학생들이 입던 속옷을 사진과 함께 판매하는 상점이 있는가 하면 주위의 이목을 두려워하는 고객을 위해 ‘브루세라 자판기’까지 등장했다.

그야말로 자판기의 익명성의 장점이 한껏 활용되고 있는 경우이다. 우리 문화로는 도저히 용인되지 못하는 자판기군이지만 이를 용인하는 일본 성문화의 개방성을 과연 어떻게 평가해야할지. 일본의 대중문화처럼 일본의 자판기 문화도 국내 수용할 때는 몇 단계 걸러야만 하는 이유가 이러한 부분에 있지 않을까.

다음은 저 먼 대륙, 미국으로 가보자.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는 학교 내 탄산음료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을 적극 도입 중에 있다 한다.

‘코크’ ‘펩시’ ‘닥퍼페페’ ‘미스터피브’ 등의 청량음료는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고려한 LA통합교육구의 결정으로 모든 학교에서 일과 시간중 판매가 금지될 전망이다.

교육위원회에서 탄산음료 금지안이 통과될 경우 각급 학교는 오는 2004년 1년부터 일과 중 전면 판매가 금지되게 된다. 이같은 청량음료 판매제한으로 학교 내 운영되는 캔자판기는 콜라, 사이다 등의 청량음료 대신 과즙주스, 생수 등의 내용상품으로 교체될 수밖에 없게 되어 자판기 운영 수입이 크게 줄어들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부의 중심도시 LA에서 동부의 뉴욕으로 가보면 얼마 전 등장한 대형 오토샵 시스템이 큰 화제를 불러 일으켰다. ‘숍 2000’이라고 불리는 이 자판기는 워싱턴 시내 앰더스모건에 설치가 되었는데 제품 폭이 5.5m로 초대형이다. 취급품목은 올리브기름에서 우유, 계란, 치킨, 샌드위치, 종이, 타월, 세제, 기저귀, 팬티스타킹, 치약, 콘돔, DVD에 이르기 까지 없는 것이 없을 정도. 심지어 이용고객들이 구입한 물건을 싸갈 수 있도록 비닐봉지까지 제공해 준다.

미국의 편의점 업주들은 전통적인 편의점 사업에 이 자판기를 도입하는 방안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게 이 제품의 개발 동기라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편의점 업주들은 인건비와 가계임대료를 절감할 수 있고 원격조정이 가능한 관리상의



도쿄 야스쿠니 신사에 설치된 비둘기 모이 자판기

편의와 총기강도를 당할 일이 없다는데서 오는 관리상의 이점 등이 두루 작용을 했다는 것.

일본과 우리나라에 이어 미국에서도 이제 오토샵 자판기 시스템의 가능성이 본격 타진이 되게 되어 시장성공 여부에 대한 귀추가 주목이 된다.

자, 이제는 재미있고 획기적인 하나의 가능성에 포커스를 맞추기로 한다. 얼마전 미국에서는 어린이 울음 등을 증폭, 청각장애를 일으키도록 고안이 된 비상사용 무기가 곧 상품화 된다고 해 화제를 불러일으킨 적이 있다.

미국 샌디에이고 소재 첨단 기술업체 아메리카 테크놀리지는 최근 고막에 엄청난 고통을 줘 일시적으로 적군이나 테러리스트를 무력화시키는 '음파총탄(Sonic bullet) 시판 허가를 식품의약청으로부터 받아 조만간 월 1만여 개의 음파 발생장치를 생산할 계획이라 한다. 이회사가 7년간 연구 끝에 개발한 음파 총탄은 어린이 음파 같은 소리를 140데시벨 (20데시벨이면 인간이 고통을 느낌)로 증폭시켜 고막에 통증을 기하고 방향 감각을 일시 상실케 하는 것으로 미국방부가 추진 중인 비인명살상용 무기의 선두주자로 평가받고 있다.

그런데 이 신종무기가 자판기 보완강화책으로 활용될 수 있는 상품성이 크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방부 관계자들은 앞으로 난동군중, 여객기납치범, 자살폭탄테러범을 제압하거나 선박 등 주요시설 접근 차단 등에 효과적 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기타 영화관, 자동판매기, 소매점 등 지에서도 보완 강화책으로 활용될 수 있는 상품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만약 이 신종무기가 자판기에 도입이 되면 자판기 도난 파손문제에는 극약처방이 될 것이다. 자판기가 '응애 응애' 한번 울어 버리면 정말 큰일이 날 테니까.

이제는 마지막으로 영국으로 가보자. 얼마 전 영국 런던에 거주하는 한쌍의 남녀가 21세기 정체성을 규명한다는 취지를 내걸고 1주일간의 참대생활을 적나라하게 공개하는

퍼포먼스를 벌여 보행객의 시선을 끌여 모았다고 한다.

예술가인 리임 에이츠는 소호지역에서 막스화틀리(24)와 메크자크테라(22)의 협로를 얻어 '미억제(No Inhibition)'라는 제목아래 사진관 진열장에 침실을 꾸며 통행자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런데 이 공개침실의 벽에는 콘돔자판기를 설치해 구경꾼들에게 안전한 성생활의 중요성을 환기시켰다고 한다.

천태만상 자판기 세상 속에는 이처럼 알려진 화제들도 있지만 알려지지 않고 숨겨진 화제도 많을 것이다. 이들 화제를 파헤치기 위해서는 관계되는 사람들의 제보가 결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 해외에서야 해당사항이 없지만 국내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독자 여러분도 혼자 재미있는 화제를 간직하지 말고 업계 사람들도 공유할 수 있게 하는 게 어떨까. 어떠한 얘기도 좋다. 자판기 관련되는 각종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을 본지로 제보해 준다면 앞으로 본란은 더욱 내용이 충실해질 수 있을 것이다. 반대의 경우 화제가 없어 연재를 걸러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테고.

독자 여러분의 많은 제보를 기대하며 이상 어설편던 "천태만상 자판기 세상 속으로"를 마치고 다음을 기약하기로 한다. ▣